

문화광장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제주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한반도 작가들이 함께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중진 작가 8인이 회화와 사진을 선보이는 '꽃땀별하늘' (금산갤러리·2020년10월28일~11월14일)이다.

이들은 그동안 동아시아평화예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류해왔다. 8인의 작가들이 한 전시에 모인 것은 한반도와 제주도 그리고 오키나와를 잇는 예술적 공감의 자리이며,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평화예술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땅 위의 꽃과 하늘의 별

예술가들은 자신의 터전을 바탕으로 사유하고 작업하며, 때로 그 너머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연대한다. 특히 오키나와 작가들은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지리산 실상사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간에 제작한 작품들을 발표, 출품하면서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다.

한반도 작가들은 미시와 거시, 풍경과 우주 등의 키워드로 생명평화 이야기를 풀어낸다. 청와대와 경북궁, 북한산과 백두산을 담은 박영균의 풍경은 정치라는 비가시적 영역을 풍경에 담았다. 설악산과 북한산 등에 이어 지리산을 담은 임재욱 사진은 카메라로 그려낸 수목하다.

과학적 관점과 우주적 사유를 융합한 전인경의 코로나 연작은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둘러싼 인간사회의 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팔을 소재로 팔 속에 담긴 일상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정정엽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생태와 평화의제를 일깨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작가들은 풍경에 담긴 정치성을 더욱 깊은 서정성으로 풀어낸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모래밭에 이는 바람의 떨림을 포착해낸 제주도 작가 양동규의 작업은 제주도의 정치성을 넘어 정신성을 내뿜는다.

오키나와 작가 이시카기 카츠코의 연작 '기지가 있는 풍경'은 헤노코기지건설 현장의 푸른 바다를 담았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은 전쟁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짙은 슬픔을 담고 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펜스를 그려온 요나하 타이치는 식민화한 자신의 정체성을 탐문한다.

이시카기 카츠코는 제주도와 한반도를 오가며 체득한 새로운 감성

으로 오키나와 너머 동아시아와 우주를 품는 신작들을 발표했다.

섬과 반도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생명과 평화의 예술적 연대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와 우주적 관점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시명 '꽃땀별하늘'은 생명과 우주의 뜻을 새겨보고자 하는 이 전시 주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땅의 꽃과 하늘의 별이 함께 혼돈과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예술을 압축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이나 지리산, 제주, 오키나와의 풍경 속에 담긴 역사와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식물이나 세포에서 천문우주에 이르는 자연의 관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구와 우주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시공간의 축선에서 자유롭게 유평하는 생명과 우주의 사유가 여기에 담겨있다.

사설

'송악산 선언', 기대 속 우려도 크다

원희룡 도지사가 25일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에다 장소도 도청이 아닌 현장에서 발표해 극히 이례적입니다. 환경전문 서두에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자산이며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국민', '헌법'을 언급한 점도 대선행보와 맞물려 눈에 띕니다. 당장 송악산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유원지,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포장,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도가 앞으로 경관 사유화, 자본검증 및 엄격한 사업 심의, 생태계 교란 등을 내세워 각종 사업에 제동 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선언에 원론적인 환경과 함께 각론적으론 우려의 시각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자연을 후손에 물려줄 책무는 당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등 행정의 제반 절차에 맞춰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들의 경우 '부정'의 대상만 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당연히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 경우 환경과 성장가치 적용에 얼마나 객관화된 행정 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환경과 개발이란 대립구도 속에 환경 우선 시대적 가치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지도 안 됩니다.

또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2공항문제가 빠지고, 비자림 확포장공사는 계속 추진의사를 내비친 점도 '환경선언'을 뒤흔트렸다는 평가입니다. 원 지사가 최근 마포포럼 참석,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을 회견에 이은 '환경선언'도 대선을 의식한 정치행보라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도가 선언문 이행 원칙으로 밝힌 '청정·공려출 책무는 당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생명 나눔 열기마져 시들어 안타깝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매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장기기증을 약속한 희망등록자 수는 줄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제주지역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 울퉁한 생명 나눔 열기마져 크게 위축되면서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전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지역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1만5507명으로 전 도민의 2.31%가 장기기증을 약속했습니다. 2012년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희망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407명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만550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2015년 1389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이듬해인 2016년 세자릿수로 떨어진

후 지난 8월말 현재 616명으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장기이식을 대기한 환자들도 그 기간이 덩달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장기이식을 받기까지 3년 이상 걸릴 정도입니다. 현재 제주에선 장기이식 대기자가 1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는 만큼 장기기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한라일보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본보는 보다 많은 도민이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별기획으로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을 5차례 걸쳐 시리즈로 다룬 것도 그 일환입니다.

열린마당

4-H비석, 향토유형유산으로 만들어 보전해야



고성봉 서귀포시 남원읍 4-H본부 회장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4-H 운동은 192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현대적 의미의 4-H운동은 1947년도에 시작돼 제주에는 1953년도에 제주읍 도두리 다호4-H구락부가 정식으 발족되면서 시작했다.

리·동단위로 4-H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안 마을 단위에서는 운동의 부흥과 상징성을 위해 4-H비석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농업단체를 상징했던 비석은 곧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리·동4-H회는 소멸됐고, 50~60여년 동안 농업, 농촌문화유산으로 마을마다 자리 잡고 있던 4-

H비석은 도로확장 사업과 지역의 부관심 속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내에 30여기가 못되는 4-H비석, 표석, 추모비, 기념비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 번 소멸돼버린 문화유산은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14년 8월 1일에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 제정해 보전 가치가 있는 향토 유형유산들을 보전·관리하고 있다.

삼양동 흑사구층이 향토유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올해 신효동 하골나무가 31호로 지정되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돼 보호 관리를 받고 있는 부분은 큰 의미를 갖는다.

농촌청년구락부, 4-H구락부, 새마을4-H구락부, 새마을청소년회, 4-H회로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수십년간 농업, 농촌,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4-H운동의 문화유산인 4-H비석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 관리하기를 제안한다.

뉴스-in

“의회 동의절차 밟으면 지사도 자유롭다”

인사청문회 개선필요성 부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

2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은 제도개선이 안 되면 청문회 부적극 판정을 받은 인사를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원 지사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며 “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지사도 사실 자유롭다”는 대안이 담긴 제도개선 검토를 주문.

이에 도 측은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 오은지기자

헬러윈데이 방역고삐 강화

○...제주시가 오는 31일 헬러윈데이를 앞두고 고위험시설에서 지난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고삐를 강화. 지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형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서부터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 중인데, 핵심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방역이 느슨해지는 순간 언제든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며 긴장. 문미숙기자

교육청 외벽에 'BTS' 떴다

○...제주도교육청이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도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교육청 본청 외벽에 게시해 눈길.

현수막에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Dynamite' 가사 내용 'I'm Diamond you know I grow up'에 이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든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문구가 적시. 도교육청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송은범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정은(前 제주시청 근무) 아버지 광산김공 재경(향년 89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25일 16시 45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심마음 작물과 소풍 제주 먹고사리뿌리와 등돌레뿌리 ...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농작물관리요령및 병해충방제정보를안내합니다. ...